

능력·소통 위주 엄선... 윤석열정부 성패 가늠자 된다

정무 이진복

정당·계파 초월 화합형 인사

경제 최상목

'정통 경제관료' 별칭

사회 안상훈

김기춘 비서실장 사위 '눈길'

시민사회 강승규

기자·MB계 의원 출신

홍보 최영범

언론인 출신·기업홍보맨



<1면에서 계속> 이 소식을 접한 이 후보는 이 내정자를 선거사무실에 초대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처음 조우했다. 이를 계기로 이 내정자는 1981~2001년 박 전 의장 보좌관을 지낸 후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동래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 때 동래에 출마표를 던져 이 곳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이 내정자는 여야계파를 초월한 '화합형' 인사로 꼽힌다. 당초 민주당계 소속으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으며 장 실장과 권성동·윤한홍 의원 등 윤 당선인 최측근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이 내정자는 대통령실·동래구청장을 거쳐 18~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이라며 "정무적 판단과 행정력·정치력을 두루 갖췄으며 여야는 물론 원내·외위를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치적 역량은 대통령실 정치권을 있는 소통 통로가 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차관급 직위이지만 사실상 경제부총리에 버금가는 직위로 알려졌다. 최상목 내정자는 1963년생(58세)으로 서울 출신이다.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졸업했으며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최 내정자의 별칭은 '천재관료'다.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경제정책국장, 기재부 정책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10월~2014년 7월에는 경제부총리

정무수석

이진복

- 부산(64)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 대통령인정비서실 행정관
- 서울대 해양정책최고과정 수료
- 부산시 동래구청장
- 18·19·20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략기획본부장
-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수석

최상목

- 서울(58)
- 오산고
- 서울 법대
-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29회
- 기재부 정책조정국장·부총리 정책보좌관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사회수석

안상훈

- 서울(52)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 스웨덴 옘살라대 사회학 박사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장
- 기재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 충남 예산(58)
- 천안복일고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서강대 광고홍보학 박사
- 한국일보·경향신문 기자
-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미디어홍보담당
-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부대변인
- 18대 국회의원
-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홍보수석

최영범

- 서울(61)
- 성균관대 법학과
- 미국 조지타운대 특별연구원
- 동아일보 기자
- SBS 정치부장·논설위원·보도본부장·경영지원본부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실장(부사장)

자료: 인수위 대변인실·뉴시스·SNS (그래픽=오동훈 기자)

겸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4년 7월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2016년에는 다시 기재부로 복귀해 이듬해 5월까지 제1차관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공직에서 퇴임했다.

이후 2019년 3월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2020년 3월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2020년 3월 농협대 총장 등 재야에서 활동한 최 내정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취임해 정계에 입문했다.

최 내정자는 별칭처럼 유능한 정통 경제관료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 실장은 "최 내정자는 거시경제·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며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히 해결할 산적한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자타공인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복지' 실마리... '姜·최영범,尹·국민생방향소통 책임자'

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정책·교육문화·주택도시기후환경·여성가족 등을 다루는 직책이다. 사회혁신·시민사회·제도개선 등을 맡는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는 업무 분야가 다르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는 1969년생(52세)으로 서울 출신이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위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스톡홀름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스웨덴 옘살라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정책기획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안 내정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으로서 윤석열정부 사회·복지정책 설계에 핵심 역할을 했다. 보편적인 현금복

지는 지양하고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를 두텁게 하는 한편 전국민에게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복지'가 정책 요인이 것으로 전해졌다. 안 내정자는 지난 3월 "복지·성장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독일·스웨덴 등이 지난 30년간 해온 개혁처럼 교육·보육 등을 통한 서비스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내정자는 새 정부의 비전 및 국정과제·핵심정책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실장은 "안 내정자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통령실·정부부처가 긴밀히 소통·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는 1963년생(58세)으로 충남 예산 출신이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등을 졸업하고 서울

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서강대 광고PR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 밑에서 서울시 공보관 등으로 활동해 친이계로 분류된다.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마포갑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친이계라는 이유로 '공천학살' 대상이 돼 탈락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친박계 후보에게 공천을 빼앗겨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윤석열정부 수석비서관에 지명돼 정계복귀에 성공했다. 장 실장은 "강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사회 활동을 검증받은 분"이라며 "다양한 정치·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대통령실 연결에 생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책임자"라고 언급했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 재정자는 1960년생(61세)으로 서울 출신이다. 영동고성

군관대 법과대학 졸업 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으며 SBS가 개국하자 자리를 옮겨 25년 동안 근무했다. 상당 기간 정치부장으로 활동했으며 경영지원본부장을 마지막으로 SBS를 퇴사한 뒤에는 효성그룹 부사장(커뮤니케이션 실장)으로 재직했다.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나 정계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근 적은 없지만 홍보수석에 '기업인 출신 방송언론인'을 선호한 윤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와 면담한 바 있다. 장 실장은 "언론계에서 쌓은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은 물론 기업 CI 구축, 홍보커뮤니케이션 총괄 등 역량을 갖췄다"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및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주한기자 jhoh@skyedaily.com

www.douzone.com
DOUZON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Amaranth 10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임직원 업무관리

HR

CRM

Groupware(UC)

문서 관리